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11일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신장보 수문을 모두 열었으나 빗물이 넘쳐 흐르고 있다(왼쪽). 신장보에서 역류한 하천수로 주변 농경지가 침수된 모습.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큰비 오면 다 잠긴다” 주민 지적 묵살 주말 폭우에 농경지 50ha 또 ‘물바다’

대촌천 일대 ...농어촌공사 수문관리인 전화는 ‘먹통’

광주시 남구 신장동과 나주시 남평읍 일대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대촌천에 설치된 보(堰)가 장마 때마다 범람해 인근 논밭이 극심한 침수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문제의 보는 장마철 불어나는 수량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에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개·보수공사나 시설 관리 등에 소홀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11일 남구 신장동·대지동과 남평읍 평산리 주민 등에 따르면 이날 쏟아진 비로 인해 대촌천이 범람함에 따라 인근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등 50ha가 침수됐다.

이날 대촌천이 넘친 것은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길이 30m·높이 3m·폭 2m 크기의 ‘신장보’가 갑자기 불어난 강우량을 조절하지 못한 채 역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천을 타고 쓸개없이 쏟아져 내려오는 빗물로 인해 신장보에 설치된 가로 0.8m·세로 0.7m 크기의 수문 4개가 오하려 방어막 역할을 하면서 하천의 수위를 되레 높여놓은 것이다.

신장보는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평상시 하천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지난 1945년에 건설됐지만, 침수피해가 잇따르자 지난 2008년 보수공사를 했다.

그러나 관리를 맡고 있는 농어촌공

사는 보수공사 당시 부식된 콘크리트를 덧씌우거나 수문 개폐 장치를 교체하는 등의 일부 보수만 했을 뿐 침수피해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지역은 지난해 8월에도 침수피해를 입은 곳이어서 신장보의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당시 피해 주민들은 농어촌공사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농어촌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어촌공사 측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음에도 신장보에 대한 관리 제대로 하지 않아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본보 확인 결과 신장보의 안내 팻말에는 5개

월 전 다른 곳으로 발령난 직원이 관리 담당자로 지정돼 있는가 하면 마을 관리 담당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주민 송운근(44)씨는 “신장보 수문이 강우량에 비해 턱없이 작아 하천수의 방출을 막고 있는데도 농어촌공사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왜 잘못된 시설물 때문에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나”며 발을 굴렀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관계자는 “대촌천의 범람은 수십년 전에 지어진 보가 하천 주변의 상황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수문 크기 확대 등 개·보수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폭우로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된 뒤 구조됐다.

◇침수 피해=11일 오후 1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 사거리와 광산구 보훈병원~산동교, 광산구 평동대교 인근 천변로, 광산구 운남교 지하도로, 북구 문흥동 지하도로, 북구 운암동 서강대 인근 지하차도 등 도로가 침수돼 교통이 일부 통제됐다. 이날 광주의 각 구청에 접수된 주택 침수 피해 접수 건수는 50여건에 달했다.

또 무안~광주 고속도로 광주요금소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서는 토사가 도로로 유입되면서 한때 차량 통행이 큰 지장을 받았다. 농경지의 경우 무안군 청계·해제·현경면, 함평 학교 농공단지 앞 일대 등 전남 7개 군 1646.4ha가 물에 잠겼다.

◇교통통제=11일 새벽 6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전남지역의 바닷가에 연 2~4m의 높은 파도가 일어 목포·여수·완도 등에서 섬 지역을 잇는 51개 항로 중 37개 항로 44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또 김포~광주공항을 오가는 대한항공 KE1300·1301호가 결항되는 등 주말과 휴일 뱃길과 하늘 길이 강풍과 폭우로 인해 운항에 큰 차질을 빚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그릇된 전쟁 역사 바로 잡아야”

국군이 마을 초토화 ... 화순 피해 주민 손배소

“국군이 공비토벌을 명목으로 민간 마을을 초토화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6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그릇된 전쟁의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10일, 화순 일대에 주둔 중이던 육군 11사단은 화순군 북면과 이서면 일대의 민가 마을에 대해 대대적인 소각 작전을 벌였다. 이른바 ‘견벽청야’(堅壁淸野·거점은 견고하게 하고 들판은 깨끗이 비우는 전술) 작전을 통해 백아산 일대의 공비들을 고립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날 국군의 ‘초토화 작전’은 화순 일대 민간 마을에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남겼다. 북면 일대 24개 마을과 이서면 21개 마을 등 총 45개 마을에 있던 민가 1750호가 ‘속대밭’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지역에 대한 보상이나 진실규명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정보

(72·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씨 등 피해 주민 480여명이 진정서를 냈지만,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결국 영원히 묻혀질뻔 했던 이 사건은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정씨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정씨는 “당시 국군의 작전으로 인해 화순군 북면 와천리의 가옥 72.6㎡와 행랑채 56.1㎡ 등이 모두 불에 타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군이 민간 마을을 초토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60년이 지난 이제라도 정부가 당시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남구서 또 새벽 성추행

주택가서 한달새 세차례 ... 경찰 20대 추적

광주시 남구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또다시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달 19일 이후 남구 진월동 인근에서만 세 번째다.

11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50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주택가에서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귀가 중이던 A(여·35·남구 진월동)씨의 가슴을 한 차례 만진 뒤 달아났다. 범인은 A씨가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아 황급히 인근 주택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 남성이 내 가슴을 한 차례 만진 뒤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최근 남구 진월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 용의자의 나이대와 범행 장소, 범행 수법 등이 유사한

점으로 미뤄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19일과 26일 남구 진월동 모 아파트 놀이터와 원룸에서 2건의 성폭행 미수 사건이 일어났었다.

당시 범인(연령대 20대 초반~30대 초반 추정)은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러다 미수에 그치자 폭행한 뒤 도주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을 성추행 사건이 아닌 단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남부경찰 관계자는 “전날 성추행 사건 신고가 들어오긴 했는데,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단순 사건으로 파악됐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신고를 잘못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지구대에서는 A씨의 성추행 사실을 시인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이트서 만난 여성 성폭행

30대 강간혐의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11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A(31)씨를 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모 주유소 앞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여·25·화순군 화순읍)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광주시 서구 처평동 모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친구 3명과 함께 B씨 일행 5명을 만났으며, 다른 일행들이 모두 집에 간 뒤 B씨와 단둘이 남아 자신의 차량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에서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여성 폭행 최철호씨 “팬들에 죄송”



○...여성을 폭행하는 CCTV 장면이 방송 뉴스에 공개돼 물의를 빚었던 텔

런트 최철호(40)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팔레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사실을 시인하고 팬들에게 사과.

○...검정 양복에 고개를 숙인 채 회견장에 들어온 최철호는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 무엇보다도 저를 야망주시던 팬분들에 너무 송구하다”며 후회의 눈물.

○...최철호는 지난 8일 오전 2시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횡집에서 동료 연기자 손일권, 여성 A(23)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9일 공개돼 비난의 화살.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3) 227-9940

충주점 (063)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